

해안 중부 이북과 일본 북해도에 생육하는 불등풀가사리군 그리고 동해안 영해와 서해안과도리에 생육하는 불등풀가사리군 -으로 분석되었다. 애기풀가사리군을 제외한 세계의 계통군은 형태 및 생태 유형과는 관계없이 생물지리적 분포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주목되었다.

A401 Geographical Pattern of *Microcystis* Using the Partial Sequences of N-methyltransferase Domain of *mcyA*

Jang-Eun Cho*, Sang-Weon Bang** and Myung-Soo Han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for Water Environmental Ecology and Restoration, 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 Present address : Korea Environment Institute

Microcystis is one of the dominant species of cyanobacteria (blue-green algae) that causes water blooms in eutrophic lakes and reservoirs. A *Microcystis* bloom presents a considerable threat to the health of human and animals due to its toxicity. Therefore, establishment of a rapid and reliable method for the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Microcystis* has been of great importance, especially in the drinking water system. Previously, we reported the potential use of the partial sequences of *mcyA* (microcystin synthase gene) for the determination of phylogenetic relationship of *Microcystis* (Cho *et al.* 2001 Spring. Presented in The Korean Society of Limnology). Upon extensive sequence analysis of twenty three different *Microcystis* strains, a geographical pattern was found, although the sequences were highly conserved and only about 350 bp in length. The pattern was generally divided into two groups: indigeneous (or domestic) and non-indigeneous groups (foreign). This result suggest that the partial sequence may be useful for the objective typing of *Microcystis* species.

A501 한국산 우산이끼무리 연구

최두문
공주대학교 생물학과

한국산 우산이끼에 대한 첫 연구는 Stephani, F.(1910-1917)의 *Anthoceros koreanum*, *Plagioclasma koreanum* 등에 대한 신종 발표로 시작되었으며 Horikawa, Y.(1934-1955), Hattori, S.(1941-1981) 등의 일본인으로 이어졌다. 또한 Hong, W.S. (1960-1997)는 한국과 미국의 식물상을 비교하였다. Choe, D.M.(1997)는 Yamada, K.와 이들 결과를 정리하여 35과 75속 222종 9아종 5변종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 조사에 의해 *Cephaloziella subdentata*, *Marchantia cuneiloba*, *Plagioclonium mayebarae*, *Frullania amplicrania*, *F. parvistipula*의 5종이 새로 기록되었다.

A502 한국산 변형균의 다양성과 신한국명(2)

최두문, 김중균
공주대학교 생물교육과

이 발표는 앞의 분류목록편(2000. 10. 27-28)에 이어 종 해부도의 이해를 위한 계통, 종과 속의 중요 특징, 작성된 150종의 해부도 등을 종합하였다. 1. 계통 설명은 변형균강에서 각 과까지의 검색과 과, 속, 종의 특징을 다루었다. 2. 종의 해부도 작성에서 외부는 몸(단자체, 단자낭, 굴곡자낭체)의 형태와 포자낭과 병, 배상체 그리고 벽소판의 구조 등을 도시하였고, 내부는 주로 축주와 망모체, 벽망과 절, 병의 내부포자상세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포자낭의 색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A503 노랑턱멧새(*Emberiza elegans*)의 song theme과 변이에 대한 연구

이원호*, 권기정
동아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노랑턱멧새의 song theme과 변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일원의 16개 활엽수림지대에서 번식기에 세력권을 형성하고 강하게 노래를 부르는 45개체의 노랑턱멧새 수컷에서 3245개의

노래소리를 녹음하였다. 노래소리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이며 lexicon이 부여된 640개의 syllable의 조합을 분석하여 164 theme, 1024 variant로 분류하였다. 수컷은 1~6 song themes을 가지고 있었고, repertoire size는 평균 3.5개를 가지고 있었다. 수컷 개체 사이에서 노래소리를 구성하는 syllable 순서와 배열이 완전히 동일한 song theme은 하나도 없었다. 수컷 개체의 노래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syllables의 수는 5~14개(평균 9.4개)였다. 수컷은 하나의 song theme에 변이를 만들기 위해서 syllable을 첨가, 삭제, 대체하여 repertoire size를 효과적으로 증가시켰다. 하나의 song theme이 갖는 variant의 수는 평균 5.1(1~31)개였고, 개체 변이성은 노래소리의 말단부의 구성요소에서 가장 높았다. 수컷개체는 드물게 hybrid song(22개)를 가지고 있었다. PCA 분석에서 공유하는 syllable에 기초를 둔 요인I과 유일한 syllable에 기초를 둔 요인II에 의해서 노랑턱멧새 16 개체군은 다른 군집을 형성하였다. 공유한 syllable의 수에 기초를 둔 유사성 측정은 지역과 일치하는 강한 형태를 나타냈다. 양방향 유사도를 분석한 결과 16 개체군은 UPGMA 군집 속으로 나누어졌으며, 지리적인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유사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701 국내 고유종인

우리방아거저리의 再檢討 및 한국산 방아거저리屬 (딱정벌레目, 거저리科)의 분류적 정리

김진일, 김수연*

성신여자대학교 생물학과

한국산 방아거저리族 (딱정벌레目, 거저리科)의 대표종이라 할 수 있는 *Tarpela magyari* 종은 북한산 표본을 재료로 처음 기재(Kaszab, 1968)되었는데 남한에서는 이 종의 표본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일본종인 *T. brunea*와의 분류에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본인은 이 종의 모식표본을 재조사하고 국내 새로운 표본을 근거로 외부형태 형질과 생식기 도해를 첨부하여 재검토하였다. 아울러 본군에 속하는 여타종과의 형태적 차이와 유연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히 고찰하고 국내 종 및 외국의 확인 종을 대상으로 검색표도 제시하였다

A702 한국산 가계거미과 (Agelenidae C. L. Koch, 1837)의 분류학적 재정리

김주필*, 탁현균

동국대학교 생물학과; 한국거미연구소

Korean Agelenidae is revised and redescribed as 2 genera and 10 speci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haracter, a key of the genera is researched and focused more on its own characteristic of chelicerae and posterior eye row (PER). A characteristic of genus *Agelena* is its well-developed chelicerae. In addition, its PER is strongly procurved. A characteristic of genus *Tegenaria* is that it has a PER which is slightly procurved or erect. 5 species of Agelenidae existed only in Korea (*Agelena choi* Paik, 1965 and *A. donggukensis* Kim, 1996 and *A. jirisanensis* Paik, 1965 and *A. koreana* Paik, 1965 and *Tegenaria secunda* Paik, 1971) need to be more researched and studied since there is very brief information about specimens of those species known. 8 species is classified in genus *Agelena* and 2 species is classified in genus *Tegenaria*.

A703 한국산 게거미과 (Thomisidae Sundevall, 1833)의 분류학적 재정리

김주필*, 권순필

동국대학교 생물학과; 한국거미연구소

Thomisidae, a group of hunting spiders that do not build webs, lie on various plants in wait for passing insects. The basic body structure of thomisid spiders is related with their feeding habits. Their remarkable appearance is in the condition of legs, which extend sideways like those of crab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s, a key of the genera is made out. As a result, Korean Thomisidae is redescribed and revised as 33 species of 17 genera.